

네 마음의 그릇에 나 예수를 담으라.

작성일 : 2011. 01. 07(금) A.M 02:10

작성자 : 정은별 (천안 소망)

[ 이 날은 자리에 앉아 가만히 주님을 생각하며  
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.  
다른 날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  
했고  
또 하나님 오시면 성령 어머니, 예수님,  
선생님 동행하실 것이니  
삼위와 스승의 사랑이 제게 임하기를 바랐습니다. ]

\* 하나님 말씀 \*

사랑아. 나의 심정아.  
이 시대 생명의 일은  
나의 일 중 가장 위대하고도 위대하며  
성결한 일이다.  
내가 너에게 다가와 심정으로 이르리니  
너는 진정 성결함으로 나의 말을 받으라.  
나의 말은 입에 단 꿀 송이와 같고  
과즙이 흐르는 익은 과일과 같으니  
너는 나의 말을 즐거이 받으라.  
나의 사랑으로 깊은 것을 네게 밝히 이르리라.  
'생명'과 '사랑'을 두고  
깊이 기도하여 보아라.  
나 여호와의 사랑이 아니고는  
이 지구 땅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 
그 어떤 일의 경영도 이루어지지 않느니라.  
이와 같이 나 여호와의 사랑이 아니고는  
모든 육체가 나의 영광을 볼 수 없느니라.  
또한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느니라.  
그런즉, 너는 나 여호와의 사랑의 깊은 것을 깨달  
아야 한다.  
그러니 너는 나 여호와의 사랑에 도전하여라.

( 이후 천국성령운동 기도회 중 한 환상을 보았습  
니다.

어떤 자가 자기 그릇에 물이 없어 바닥이 났음에도  
물을 받지 않으려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.  
또 어떤 자는 자기 그릇에 물이 충분하여  
찰랑거리는 자가 있었습니다.

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릇에 물을 받을 수 없으니  
다른 그릇에 물을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. )

\* 예수님 말씀 \*

이는 마음의 그릇을 말하느니라.  
물은 내가 주는 사랑과 진리, 곧 성령이니라.  
어떤 인생은 자기 영혼에 기갈이 와도  
그 마음에 나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 
자기 마음에 자기의 것만 담으려 하니  
그 그릇에 물을 부어줄 수가 없다.

사람의 영혼의 그릇에는  
육의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요,  
하늘의 것을 담음에 그러하다.

내가 부어주는 사랑과 진리, 성령을 감당하는 자라  
야  
내가 그 인생의 그릇에 더 큰 성령 부어주고  
또 다른 차원으로의 사명을 감당케 하느니라.  
사명의 그릇을 넓히며  
더 새로운 사명을 주어  
그 속에 나의 합당한 진리의 성령을 부어  
또 다른 차원의 사랑의 역사를 펴게 하느니라.

그러니 너희는 네 마음의 그릇을 넓히며  
네 가진 육의 소유를 모두 내어 버리고  
영의 것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고 간구하라.  
이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니라.  
나의 깊은 계시이니라.

내가 너에게 개인의 그릇을 보여주고  
그 그릇을 얼마나 감당하는지 보여주었음은  
네 그릇에 있는 사고와 상념들을 버리고  
그 속에 나의 것을 담으라 함이며  
영혼의 그릇에 진리의 물, 성령의 물,  
양심의 물이 없어 기갈에 처한 자들에게  
네 마음을 기울여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며  
생명을 살리라 함이라.  
생명 구원의 원리니라.

네 모든 마음 나에게 기울여 나의 소리 듣느라 수  
고하였다.  
보다 영의 차원에서 나의 말을 듣게 하였다.

나의 능력과 권능의 말을 네게 주었으니  
더욱 기도하자. 나와 사랑하자.  
안녕. 너의 사랑 나 예수.